

[사회]

쇠고기 원산지 표시 제도기간 종료 소형식당 오늘부터 본격 단속

오늘부터 100㎡ 미만의 소형 식당도 쇠고기 원산지를 정확히 밝혀야 하며,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그러나 48만여곳에 이르는 소형 음식점 가운데 상당 수는 아직 새 원산지 표기 규정에 익숙하지 않아 적발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7월부터 새 원산지 표시 제도가 본격 시작됐으나 식품 당국은 급격한 제도변화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소규모식당에 대해 9월까지 3개월 동안 '제도' 기간으로 정했다.

농식품부와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 따르면 10월부터는 100㎡ 미만 규모의 음식점들도 원산지를 메뉴판이나 계산기 등 한 곳에 정확히 밝혀야 하며,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물론 허위표시의

경우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 영업정지 등 더 엄격한 처벌을 받는다.

다만 정부는 현실적으로 과태료가 큰 집이 되고 준비가 부족한 33㎡(10평)이하 영세 음식점에 대해서는 두 달여의 유예 기간을 더 인정해주기로 했다. 전체 적용 대상 음식점 65만개 가운데 100㎡ 미만은 약 48만개(74%), 33㎡이하의 약 18만개(28%)로 파악되고 있다.

소형 음식점이 이달부터 단속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이에 비례해 적발 건수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새 원산지 표시제 시행 이후 지난달 25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적발된 원산지 위반 사례는 모두 367건이다.

연립뉴스 ajh@연립뉴스



조선대가 지난달 30일부터 이틀동안 교내 중앙도서관 1층 로비에서 개최 중인 '2008 취업박람회'에 대학생들이 기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취업 상담을 받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KT, 엠코코리아 등 29개 업체가 참여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4년제 대학 올 신입생 충원율 전남 85.2% 그쳐 전국 최저

전남지역 4년제 대학의 올해 신입생 충원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적으로 70%를 채우지 못하는 대학 20곳 중 광주·전남지역에 있는 대학이 6곳에 달했으며, 이 중에는 최근 5년간 단 한 번도 50%를 넘지 못한 대학도 있었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이 공개한 '전국 199개 4년제 대학의 2004~2008학년도 신입생 충원율'에 따르면 전남지역 4년제 대학은 2008학년도 모집인원 1만1천819명 중 85.2%인 1만868명이 등록하는데 그쳐 전국에서 가장 낮은 충원율을 기록했다.

반면, 광주는 전체 모집인원 1만5천562명 중 1만5천173명이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 충원율 97.5%로 대전(97.5%)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의 4년제 대학 충원율 70% 이하 20개 대학에 포함된 곳은 광주의 광신대(65.1%), 광주가톨릭대(66.7%), 호남신학대(63.1%)와 무안의 초당대(67%), 광양의 한려대

2008학년도 광주·전남 주요대학 신입생 충원율

설립형태	학교명	충원율(%)
국·공립	목포대	87.7
	목포해양대	97.2
	순천대	99.5
	전남대(광주)	98.9
	전남대(여수)	97.9
사립	광주대	94.3
	광주여대	97.7
	남부대	92.2
	대불대	86.4
	동신대	89.3
	명신대	82.0
	조선대	97.4
	초당대	67.0
	한려대	31.4
	호남대	86.8

(자료: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실)

(31.4%), 영광의 영산신학대(14%) 등 6곳이다. 이 중 광신대, 호남신학대, 광주가톨릭대, 영산신학대는 각각 각 신교와 천주교, 원불교 성직자

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라는 특수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산업대인 한려대의 경우 2008학년도 모집인원 684명 중 215명만 등록하는데 그쳐 31.4%의 낮은 충원율을 기록한 것을 비롯, 최근 5년간 50%를 넘는 적이 없었다. 초당대도 ▲2007학년도 62.4% ▲2006학년도 52.6% ▲2005학년도 67.7% ▲2004학년도 59.4% 등으로 절반을 겨우 넘기는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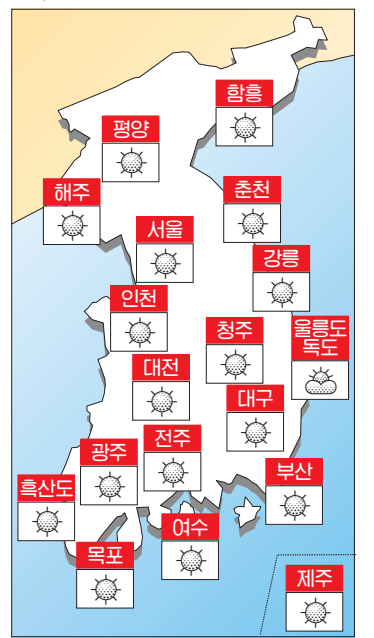
전남에서는 국립대인 순천대가 99.5%로 2008학년도 충원율이 가장 높았고, 전남대 여수캠퍼스(97.9%), 목포해양대(97.2%), 동신대(89.3%), 목포대(87.7%) 등이 뒤를 이었다.

광주는 각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성직자 양성 대학을 제외하곤 충원율 80% 이하 대학은 없었다. 전남대가 98.9%로 가장 높은 신입생 충원율을 기록했고, 광주여대(97.7%), 조선대(97.4%), 광주대(94.3%), 남부대(92.2%), 호남대(86.8%) 순이었다.

정정실기자 camus@kwangju.co.kr

가을 하늘 '쾌청' 10월 1일 (음 9월 3일) <전국날씨>

주요 지역	기온	날씨
서울	14~27℃	맑음
부산	15~25℃	맑음
대구	18~23℃	맑음
대전	16~23℃	맑음
광주	11~27℃	맑음
제주	12~27℃	맑음
목포	12~27℃	맑음
순천	15~24℃	맑음
영광	11~27℃	맑음
영암	12~27℃	맑음
무안	12~27℃	맑음
담양	15~24℃	맑음
장성	11~27℃	맑음
해운대	15~27℃	맑음
속초	11~27℃	맑음
제주	18~21℃	맑음



서해남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1.5m
남해남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5~3.0m
목포 밀물 < 02:58
여수 밀물 < 10:02

해돋이 06:27 해질 18:16 달뜨기 08:10 달지기 18:55

날짜	2(목)	3(금)	4(토)	5(일)	6(월)	7(화)
날씨	☀	☀	☀	☀	☁	☀
최저/최고	12/26	15/26	14/26	16/24	16/23	14/24

초·중·고생 비만율 매년 증가 추세

초·중·고교생의 비만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학생들의 비만율은 지난해보다 다소 낮아졌으나 전국 평균에 가깝고, 전남은 증가 중이지만 평균 비만율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민중당 김춘진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생의 지난해 비만율은 11.8%로 ▲2006년 11.6% ▲2005년 10.4% ▲2004년 10% 등에 비해 꾸준히 증가했다. 고교생의 비만율이 12.7%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 11.6%, 초등학생 11.2%였다.

광주 학생들은 2007년 11.7%로 2006년 12.2%에 비해서는 줄었으나, 2005년 8.9%에 비해서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07년 광주 고교생의 비만율은 13.1%로 초등학생(10.6%)이나 중학생(11.4%)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전남의 2007년 비만율은 10.2%로 전국 평균보다는 낮지만 ▲2006년 10% ▲2005년 8.6%에 비해 증가 추세에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신용카드 결제 가능

내년부터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하철, 버스처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류철호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지난달 30일 "하이패스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IC칩을 장착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신용카드사와 협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류 사장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와 일반 차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초등 - 1차(11월 2일), 2차(11월 16일)시행 / 중등 - 1차(11월 9일), 2차 시험(12월 14일) 시행예정

박내영교육학

9~10월 단원별 문제풀이반 수강생 모집!

박내영교육학 개강 9월 5일

박내영고시학원 529-0090

http://www.naeyoung.com

교원임용 공개설명회

매주(화,금) 11시, 3시, 7시(임용가이드제공)

박내영고시학원

부동산 전문회사 ASSET KOREA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주요 부동산 전문 서비스: 매매, 전세, 임대, 관리, 투자

주요 부동산 전문 서비스: 매매, 전세, 임대, 관리, 투자

주요 부동산 전문 서비스: 매매, 전세, 임대, 관리, 투자

주요 부동산 전문 서비스: 매매, 전세, 임대, 관리, 투자

에너지비 걱정! "히팅레일"로 해결!!

기름값의 1/4, 가장 경제적입니다.

탄소를 소재로 한 특허제품(10-0736741호)

안정성: 99.9%
하차: 99.9% 하차가 없음.
환경오염 "0", 쾌적난방
사후관리: 고장없음. 반영구적임.
보일러실이 필요 없음.
시공비도 저렴합니다.
소비가 만족을 보장해 드립니다.

일반전기 사용시설에 좋습니다

병원, 유치원, 요양원
기숙사, 고시원, 음식점
복지시설, 종교시설
모텔, 오피스텔
현장사무실, 일반상가

가정용 전기는 전기요금 누진체제로 적용이 적당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지티 나 히팅레일을 꼭 검색해보세요

상담 전화: GT3 주식회사 지티 호남지사 전남 062)523-1990